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중간결산

개막 5일 만에 프로그램 이벤트 관객 5만 명!

상영관 및 영화의전당 유동 인구 급증, 인산인해
화요일 개막·하루 5회 상영에, 관객들 뜨겁게 호응

지난 10월 6일(화) 개막한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반환점을 돌았다. 개막 5일째인 10일 기준으로, 영화의전당 야외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오픈 토크, 야외무대인사, 아주담담을 비롯하여 씨네 클래스, 액터스 하우스 등 실내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 이벤트를 찾은 관객 수가 5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프로그램 이벤트 최종 관객 수를 닮은 만에 이미 넘어선 것. 올해 처음 도입한 화요일 개막과 대형관을 중심으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5회차 상영으로 관람 기회를 넓힌 가운데, 상영관은 물론 영화의전당 야외 행사장에 연일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영화제 첫 주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배우 김민하의 단독 사회와 작년에 이어 민규동 감독이 연출한 개막식에는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 양자경,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까멜리아상 수상자 허안화 감독을 비롯해 알폰소 쿠아론, 샤를로트 갱스부르, 저우원, 판빙빙, 고레에다 히로카즈 등 국내외 영화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의 김종관 감독과 배우 김민하, 주종혁, 한선화, 장률, 심은경, 전소영, 김동휘를 비롯해 <가능한 사랑>의 이창동 감독과 배우 설경구, 전도연, 조여정, 조인성, 그리고 임권택, 정지영, 배창호, 이명세, 나홍진 감독 등이 레드카펫과 개막식을 함께했다. 美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출품 자격과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 A-리그스트 선정으로 글로벌 위상이 한껏 높아진 두 번째 경쟁부문의 심사위원단 장이머우, 비간, 사말 예술라모바, 이시카와 케이, 정주리, 썬 티 빅 응옥, 최희서도 한자리에 모였다.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재수 부산시장도 참석해 영화제의 개막을 함께했다.

세계적인 영화인들과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는 자리도 첫 주를 채웠다. 처음 한국을 찾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그래비티> 아이맥스 특별상영과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관객과 만났고, 배우이자 감독인 매기 질렌할은 마릴린 먼로를 주제로 한 스페셜 토크에 참석했다. 샤를로트 갱스부르는 <멜랑콜리아> 스페셜 토크와 씨네 클래스를, 까멜리아상 수상자 허안화 감독은 자신의 영화와 삶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나홍진, 라브 디아즈, 린타로, 베르트랑 만디코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와 배우 김고은, 김민하, 류승룡, 신민아, 주지훈의 액터스 하우스도 창작과 연기에 관한 이야기를 관객과 나누었다.

두 번째 해를 맞은 경쟁부문의 13편 가운데 12편이 월드 또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 소개되며, 첫 상영에 앞서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에게 직접 인사하는 경쟁 포토콜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11일(일) 요섭 양기 노엔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15 October 2026**

보도자료 76

감독의 <바다에 새겨진 이름>까지 상영을 마치면 13편의 경쟁작이 모두 관객에게 공개된다. 장이머우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7인의 심사위원은 총 5개 부문의 ‘부산 어워드’ 수상작을 선정하며, 대상 수상작에는 미국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출품 자격이 주어진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부산 곳곳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다. 8일부터 남포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커뮤니티비프는 관객이 직접 영화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상영과 이벤트를 펼쳤으며, 동네방네비프는 부산 전역을 비롯해 양산과 서울까지 영화제를 확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열린 포럼 비프에서는 ‘동시대 영화의 가능성을 말하다’를 화두로 산업과 AI·창작, 제도·정책, 지역·환경을 아우르는 8개 세션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영화 환경을 논의했다. 커뮤니티비프와 포럼 비프는 오늘 나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10일(토)에 개막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은 58개국 1,200여 개사, 3,000여 명의 산업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The A,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 부산스토리마켓(BSM), 이노아시아, 프로듀서허브, 독스퀘어, 플랫폼부산 등 7개 부문에서 64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주빈국 프로그램에는 태국이 참여하며, 아시아프로젝트마켓은 역대 최다인 48개국 604편의 출품작 가운데 선정된 20개국 30편의 프로젝트를 전 세계 투자·제작·배급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IP부터 투자·배급, 국제공동제작, AI와 뉴미디어까지 영역을 넓힌 ACFM은 13일까지 아시아 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중심 역할을 이어간다.

영화제 후반부에도 영화와 관객의 만남은 계속된다. ‘비전 - 한국’ 감독과 배우들이 함께하는 아주담담과 <짐 쿤>의 마르코 응우옌·니콜라 아타네 감독의 아주담담에 이어, 김국희, 김재철, 공민정, 박지연, 임성재, 김준한이 참여하는 ‘아주담담 씬 스틸러: 장면을 훔친 사람들’이 관객을 만난다. 주디트 고드레슈 감독과 배우 심은경의 씨네 클래스, 정성일 평론가가 고(故) 안성기 배우와 한국영화사를 되짚는 스페셜 토크,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마르크 피투시 감독의 오픈 토크, 제작자 장원석과 경쟁 심사위원 비간 감독의 씨네 클래스 등 영화인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도 계속된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배우 임시완의 단독 사회로 폐막식이 열리며, 두 번째 ‘부산 어워드’ 수상작 발표와 대상 수상작의 폐막 상영으로 열흘 간의 영화제를 마무리한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15일(목)까지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부산 전역에서 여전히 알차고 풍성한 행사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 10월 6일(화) – 10월 15일(목)

▶제21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10월 10일(토) – 10월 13일(화)